

삼성바이오에피스 'SB15' 글로벌 임상3상 시동 걸었다

2022년 2월까지 10개국서 연구
의약품 간 유효성·안전성 등 비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안과질환 치료제 SB15(아일리아바이오시밀리)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본격 착수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SB15의 임상 3상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글로벌 임상시험 정보 웹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를 통해 공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임상을 통해 2022년 2월까지 한국, 미국 등을 포함한 총 10개 국의 삼출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 환자 446명을 대상으로 SB15와

오리지널 의약품 간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블록버스터 안과질환 치료제로서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아일리아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 규모는 75억4160만 달러(약 8조7000억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SB15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여,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비비고 '왕교자' 상승세... 中 온라인사업 박차

지난 4·5월 시장점유율 1위
현지법인 온라인 사업팀 신설



징동닷컴 비비고 왕교자 온라인 단독 페이지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중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왕교자'가 중국 2위 온라인 상거래 업체 징동닷컴의 교자/완탕 카테고리에서 지난 4월(31%)과 5월(33%)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열린 상반기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대전 '618 행사'에서도 비비고 왕교자, 비비고 국물요리, 햇반컵반 등 주요 제품 매출이 전년비 6배 이상 신장하는 등 온라인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는 작년 중국법인에 '온라인 사업팀'이 신설되면서 가속화됐다. CJ제일제당은 중국의 유통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시장 트렌드를 먼저 읽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 또한 2011년 인수해 현재 중국 온라인쇼핑몰 1위 티몰 즉식상(탕밥소스류) 카테고리 시장점

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지상위와 정보를 공유하며 역량을 축적했다.

CJ제일제당만의 차별화된 브랜드인 지도 확보 노력도 주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동지에 만두를 즐겨 먹는 중국 식문화에 맞춰 '大有不同(모든 것이 다르다)'는 콘셉트로 '비비고 왕교자'의 특징점을 알리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18개월만에 온라인 채널에서 매출이 13배 성장했으며, '비비고왕교자' 뿐 아니라 비비고 국물요리, 햇반컵반, 떡볶이 등 HMR 제품으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한미약품 '로수젯', MSD 손잡고 멕시코 상륙

복합신약 원외처방 중 매출 가장 높아



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신약으로, 간과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및 흡수를 이중으로 억제해 혈중 저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LDL-C)을 효과적으로 낮춘다.

한미약품과 MSD의 파트너십은 이번이 두번째다. 양사는 2009년 고혈압 치료 복합제 아모잘탄을 '코자XQ'라는 브랜드로 50여개 국가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세경 기자

한미약품 '로수젯(사진)'이 MSD를 통해 멕시코에 진출한다. 로수젯은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으로,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복합신약 중 가장 많은 원외처방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전문의약품이다.

한미약품은 파트너사인 MSD가 멕시코 의약품국으로부터 로수젯 10/5mg, 10/10mg, 10/20mg 세 가지 용량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한미약품과 MSD는 2016년 로수젯의 23개 국 글로벌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로수젯은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두 가지 성분인 로수바스타틴과 에제

유한양행, 알레르기질환 치료제 개발나서

신약 글로벌 리더 발판 마련

지아이이노베이션과 공동 연구
계약금 200억 포함... 총 1.4조
알레르기 4가지 핵심 질환 표적

유한양행이 차세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

유한양행은 지아이이노베이션과 1일 알레르기 질환 치료 후보물질인 GI-301 융합단백질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200억원을 포함,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전세계(일본 제외) GI-301에 대한 개발 및 사업화 권리를 획득했으며, GI-301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왼쪽)가 1일 남수연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와 알레르기 질환 치료 후보물질 공동연구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유발물질에 노출 시 생성되는 면역글로불린 E(IgE)가 비만세포 또는 호염구와 결합하면서 히스타민 등을 분비하며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GI-301은 이중융합단백질신약으로 현재 연매출 4조를 기록하고 있는 IgE 항체 의약품 줄레어 대비 월등히 우수한 IgE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전임상 원숭이 실험에서도 확인했다.

또 GI-301은 기존 IgE 항체기반의

약품의 대표 부작용인 아낙필락시스 쇼크(중증 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FcγR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줄레어나 개발중인 여러 항-IgE 항체 신약들이 혈중 IgE가 특히 더 높게 나타나는 아토피 환자의 임상에서 약효 입증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약물대비 높은 IgE 억제효과 및 안전성을 보이는 GI-301이 아토피, 만성염증 등의 다양한 알레르기성 질환에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양행 이정희 사장은 "지아이이노베이션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천식, 만성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음식물 알레르기의 4가지 핵심 질환을 모두 표적으로 삼는 차세대 알레르기 치료제를 개발하여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언택트 진료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센서

스마트병원 솔루션 구축... 의료혁신 '첫발'

KT-아산병원-현대로보틱스 협약
병원내 비대면 실시간 케어 개발
물품·자산 관리 로봇 기반 자동화

KT는 서울아산병원, 현대로보틱스와 스마트병원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중증환자 입원이 많은 서울 아산병원은 외래진료와 입원환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 병원 솔루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3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영상 솔루션을 통해 선별 진료소 방문환자와 병원 진료실을 연결하는 원내 감염 관리 언택트 진료와 웨어러블 디바이



KT AI·DX융합사업부문 전홍범 부사장(왼쪽부터),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병원장, 현대로보틱스 서유성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스·IoT센서·의료진용 영상솔루션으로 입원환자 위치와 건강상태를 파악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실시간 케어(스마트환자관리)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병원 내 물품·자산 관리를 로봇기반

으로 자동화하는 스마트 물류 관리 솔루션 개발도 나선다.

KT는 ICT 역량을 활용한 의료 DX 플랫폼과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고, 현대로보틱스는 로봇으로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아모레퍼시픽, 11번가와 디지털 커머스 확대

11번가 고객 구매 데이터 분석 활용

아모레퍼시픽이 커머스포털 11번가와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JBP)을 맺고 디지털 커머스 확대를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안세홍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이상호 11번가 사장이 각 사 대표로 참가한 '상호협력을 위한 JBP 협약식'이 6월 30일, 서울시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11번가의 고객 구매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아모레퍼시픽 주요 브랜드의 캠페인 기획전을 고도화하고, 11번가 '오늘 발송' 서



'아모레퍼시픽과 11번가의 상호협력을 위한 JBP 협약식'에 참가한 아모레퍼시픽 안세홍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와 11번가 이상호 사장

비스 확대 및 VIP 전문관 참여 등을 통한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 더불어 다양한 차원의 전략적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조효정 기자

보령제약

헬스케어 투자펀드에 240억

보령제약이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펀드에 24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보령제약이 투자를 결정한 하얀(Hayan I, L.P.)은 미국 현지법인 하얀 헬스네트웍스에서 설립, 운영하는 CV C(기업 벤처 캐피탈) 펀드로 미국 내 초기단계 헬스케어기업 및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보령제약은 펀드 참여를 통해 글로벌 진출 및 성장 모멘텀 마련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파이프라인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